

여성미술의 선두주자

윤석남의 '어머니의 눈'

최 근 나무판에 어머니만을 그린 전시회가 열려 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윤석남의 '어머니의 눈'이 바로 그것.

화가 윤석남(54세)은 소설가 박완서 씨가 불혹의 나이에 데뷔한 것처럼 사십의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주제로 했으며 그 작업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작품세계를 선택한 그녀는 첫번째 개인전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여성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초기에 작품전 '반에서 하나로'에서 그가 그린 것은 썩은 보석 사이에 벌거벗고 앉아 있는 여자, 손이 여섯 개라도 모자라는 어머니, 그리고 일하는 건강한 여자들이었다.

그 이후에 페미니스트 시인들과 함께 한 전시회 '우리 붓물을 트자'에서 그는 '모성'과 '자매애'를 그려내 보였다.

이러한 전시를 계기로 그녀는 여성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혼자 일하는데 익숙한에게 혼자서 계속 작업을 할 것인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람들의 다그침은 당황스런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극성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보다 넓게 열어가려고 애썼다.

그후 일년 반 동안 미국에 가 있었다. 그곳에서 사진수업과 여행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깨달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집으로 돌아온 지 1.2년이 된 그는 어느새 어머니를 그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그림으로 그리던 그는 어머니를 나무에다 새기기 시작했다. 평면이 싫어지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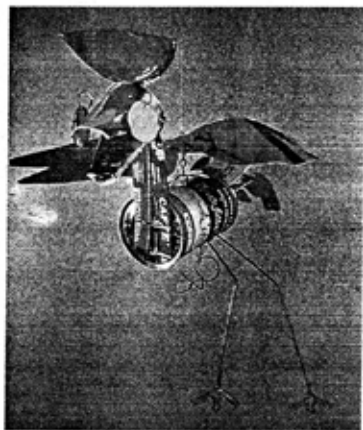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나무에다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서 얻은 나무를 들여다보다가 최소한의 손질을 해서 표정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보일 때, 그녀는 기쁘다고 했다.

이번 두번째의 개인전에서 '어머니 1: 열아홉살', '죽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어머니 5: 가족을 위하여' 등의 작품을 통해 그녀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을 담아냈다.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박영택 씨는 그녀의 작품으로 이번 초대전을 준비하면서 재료에 대한 감각이 남달리 뛰어난 것에 새삼 놀랐다고 말한다. 플라스틱 빨래판에 밀려 이 세는 잘 보이지도 않는 나무 빨래판이 그녀의 손으로 와서 생명력을 얻었다.

자신을 찾아, 여성성을 찾아 그녀는 탐구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작가답게 갈수록 실험적이 되고 있다. 그가 그려내는 모성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 본다.

경주 선재미술관에서 미국 조각가 칼더의 축제 전

경주 힐튼 가까이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사립 현대미술관인 '선재 현대미술관'에서 현대 조각사에 있어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 '벵기'(1972년).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태생의 조각가 '알렉산더 칼더(1898~1976년)'의 전시회가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열린다.

칼더는 모빌(Mobile)이라는 조각의 새 장르를 탄생시키고, 스테이블(Stabile)이라는 기념비적인 대규모 구조물을 통해 현대 조각과 건축의 조화를 시도한 작가로, 이번 칼더의 축제 전시회에는 그의 조각 25점과 드로잉 20점, 사진 16점 등 총 69점이 소개된다.

전시 캘린더

한가람 미술관

- 후이즈 후 전: 7월 9~18일
- 크리스 앤 위스퍼스 전: 7월 9~18일
-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7월 21~8월 1일
- 서울 서예관
- 제 4회 한국현대서각협회전: 7월 3~7일
- 제 6회 한국서예창년작전: 7월 13~27일

금호 미술관

- 현숙 서양화전: 7월 2~12일
- 051팀 그룹전: 7월 14~20일
- 누리우리팀 그룹전: 7월 21~27일

갤러리 사카

- 한가요일기 전: 7월 2~8일
- 장유호 개인전: 7월 9~15일
- 사천오백리 전: 7월 16~29일



담당: 박영희

나이 사십에 데뷔한 윤석남 씨는 줄곧 어머니를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어머니' / 1993년).

